

#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콩팥병 환자 특성에 대한 이해

최근 만성콩팥병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환자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만성콩팥병 환자의 투병생활은 질병자체의 고통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검사, 치료 그리고 잦은 입·퇴원으로 경제적인 부담감, 완치가 아닌 기계에 의존한 생명 연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위험, 가정 내 역할과 책임의 변화로 가족갈등의 심화, 신체상의 변화로 원활한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 고립 및 삶에 대한 의미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만성콩팥병 환자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 선 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일반대학원 졸업 석사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대한당뇨병학회 캠프위원회 위원
- 대한당뇨병학회 교육위원회 위원



# 01

## 심리정서적 측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내적·외적 환경의 영향을 통해 여러 심리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당뇨병 외 만성콩팥병이 동반될 경우 만성콩팥병만 진단받은 사람보다 더욱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석치료가 진행될 경우 전신 쇠약, 잦은 감정기복,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 때문에 부정(denial), 분노, 타협, 선망, 우울, 퇴행, 위축, 무감동(apathy) 같은 심리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닌 투병의 과정이요, 재생하려고 기를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한다.

단, 환자를 상담하게 될 경우 환자의 불안한 감정을 경청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환자에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치료과정 및 치료과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잘 적응하고 있는 성공 사례를 예로 들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질환관리에 대해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 02

## 경제적 측면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콩팥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 관리를 위한 치료비용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약값, 투석치료를 위한 수술비, 투석치료 미 지원 상태에서는 월 30만원 이내 치료유지비용이 평생 소요된다. 이는 단지 합병증치료비를 제외한 단순 투석치료와 약값 산출 의료비용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구일 경우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순응도가 낮은 환자는 민·관 기관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거나 정부산하 또는 지역사회기관으로 직접 자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함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가족들의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 03

## 가족지지 측면

치료 기간이 장기화 되는 만성 질환의 경우 가족구조의 변화가 초래하게 되고 구성원 간의 역할 전이가 일어나 가족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일차적인 지지망인 가족이 투석 치료 초기에는 긍정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다가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문제, 부양 부담, 합병증 유발로 인한 심리적 지침, 때론 이식을 위한 신장 제공과 관련된 분노와 증오감으로 더욱 갈등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전문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치료가 진행되면서 환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 콩팥병 환자의 여러 측면에서 당면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는 환자의 자가 관리뿐 아니라 관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한계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심리 정서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지원 및 가족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